

속도 내는 ‘데이터 행정’, IR&A센터 신설 성과 관리 ·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

최단 기자 dan2530@khu.ac.kr

기획조정처 산하에 IR&A센터(Institutional Research & Analysis Center)가 신설됐다. IR&A센터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성과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향후 대학 운영의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IR&A센터는 대학 내외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수립과 과학적 운영 체계를 실현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중심 과제로 데이터 기반 대학 운영 조성, 성과 관리 기획, 정책 개발, 대학 전반의 데이터 수집 등을 정했다.

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정보 공시 및 고등교육 통계 대응, 교육 편제 표준분류시스템 관리, 자체 평가 운영 등을 수행하며 실무를 담당한다.

기획조정처 학술진흥팀은 “IR&A센터는 교육, 연구, 학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지표를 설계하거나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와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는 IR 생

태계 확산을 위한 대학 간 협력과 성과 관리 관련 의사결정 지원 업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R 조직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 대학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로, 교육부의 대학 평가 지표 고도화, 정부 재정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대학 차원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 통계, 교육 수요자 만족도, 대학혁신지원사업 등의 영역에서 정량적 분석이 필수가 되면서, IR 조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타대학 역시 IR센터를 통해 대학 내부 데이터를 통합·분석하고, 전략 수립과 외부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세대는 기획실 산하에 IR센터와 전략평가팀을 분리 운영해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이원화한다. 한양대는 기획처 산하 ‘한양 IDA센터’를 통해 대학 간 협력과 개방형 IR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숙명여대는 교육혁신원 산하 IR센터를 통해 학생 만족도와 수업 평가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교육 품질 개선에 적극 활용 중이다.

학술진흥팀은 “IR&A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우리학교 경영 기조 중 하나인 ‘데이터 기반의 대학 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학술 프로그램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는 파트너” 문제 정의 능력 강조...생성형 AI 실습 강연 열려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국제】생성형 AI 강연 ‘오늘부터 매일 쓰는 생성형 AI 교육’이 지난 3일 학생회관에서 열렸다. 생성형 AI에 관한 이론부터 효율적인 프롬프트 작성, 생성형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 실습이 진행됐다.

이날 강연을 맡은 IT 기업 ‘모비니티(Mobinity)’ AI 프로젝트 엔지니어 주향목 씨는 시작에 앞서 “많은 분이 AI가 일자리를 빼앗는 존재로 여기며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런 인식 전환에 강연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기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AI가 미래 일자리 빼앗나? “인간 고유 영역 여전히 존재”

AI가 아무리 인간 수준 능력에 근접했어도, 인간 고유의 영역은 존재한다. 특히 주 씨는 AI 시대 인간이 갖춰야 할 능력 중 ‘문제 정의 능력’을 설명했다. 이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핵심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AI가 풀 수 있는 형태로 구체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AI가 문제를 푸는 데는 능숙해도,

그 문제를 제시하고 그 속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거다.

전공 지식과 AI 활용을 융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주 씨는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신이 가진 전공 지식에 AI를 접목할 줄 아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시로 기계 설비의 고장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이해하고 활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기업은 이제 ‘AI를 다룰 줄 아는’ 기계공학 전문가를 원한다는 거다.

업무 환경 속 효과적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과 태도를 일컫는 ‘소프트 스킬’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주 씨는 이를 통해 기술과 사람을 연결해 협업을 이끄는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선 국가적으로 공학도생에게 리더십과 매니징을 교육하듯이, 단순히 기술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선 이론뿐만 아니라 AI 실습도 진행됐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습에서 참가자들은 AI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창의적인 지시를 내리는 이른바 ‘좋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웠다. 주 씨는 “AI에게 건네는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논리와 언어의 영역”이라며 “질문을



지난 3일 학생회관에서 생성형 AI 강연 ‘오늘부터 매일 쓰는 생성형 AI 교육’이 열렸다.

(사진=권도연 기자)

복기 및 개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엑셀 업무 자동화 실습에선 참가자들은 회사원 입장에서 각종 업무 과정을 자동화하는 법을 배웠다.

AI 활용,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 같이 일하는 ‘파트너’로 인식해야

실습 후 질의응답 순서에서 한 참가자가 생성형 AI가 제공한 정보 중 오류를 어떻게 식별할지 묻자 주 씨

는 “결국 사람의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며 “AI에게 레퍼런스를 함께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근거를 직접한 번 더 확인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들어 생성형 AI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생이 많아진 현상에 대해서 주 씨는 “결과물에만 집착하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항상 AI가 결과물과 함께 제공한 과정과 설명을 자세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다시 질문해

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AI를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아닌 나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는 씹킹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학습과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박채은(관광·엔터테인먼트학 2025) 씨는 소감으로 “마침 AI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다”며 “강연에서 기대했던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며 만족을 드러냈다.